

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

- 이용 고도화 및 시장 투명화로 국가경제, 국민 생활환경, 자산형성 기여 도모
- 중개업, 감정평가업의 활력 제고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9일(목)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,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.
 -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(한국공인중개사협회, 한국감정평가사협회, 프롭테크 포럼)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.
 - 한국부동산원,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.
-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‘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’을 발제한다.
 -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,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.
-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.
 -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.
 -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.

-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.
 -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,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·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.
-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.
 -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,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,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.
-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, “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할 예정이다.
 - 이어서, “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, 국민 생활환경 개선, 정당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”라고 강조할 예정이다.
- 특히,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, “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”라고 밝히는 한편,
 - “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

※ 발제 및 건의내용은 사전제출 자료에 기반하였으며, 변경 가능성 있음

국토교통부 <총괄>	토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삼술 (044-201-3398)
		담당자	사무관	연규성 (044-201-3400)
<공인중개업>	부동산개발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434)
		담당자	사무관	김교준 (044-201-3412)
<감정평가업>	부동산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유리 (044-201-3422)
		담당자	사무관	최승필 (044-201-342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부동산 산업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

정책목표

국가 경제 발전 + 국민 생활환경 개선 + 국민의 정당한 자산형성

추진전략

01

부동산 이용
고도화

02

부동산 시장
투명화

실천과제



AI·AR·VR 등
신기술 융합



데이터 거래
플랫폼 고도화



실거래조사
고도화



중개업종사자
감정평가사역량
제고



데이터 개방 및
빅데이터 활용



신생기업
사업화 지원



부동산 전자계약
활성화



감정평가사
독립성 강화